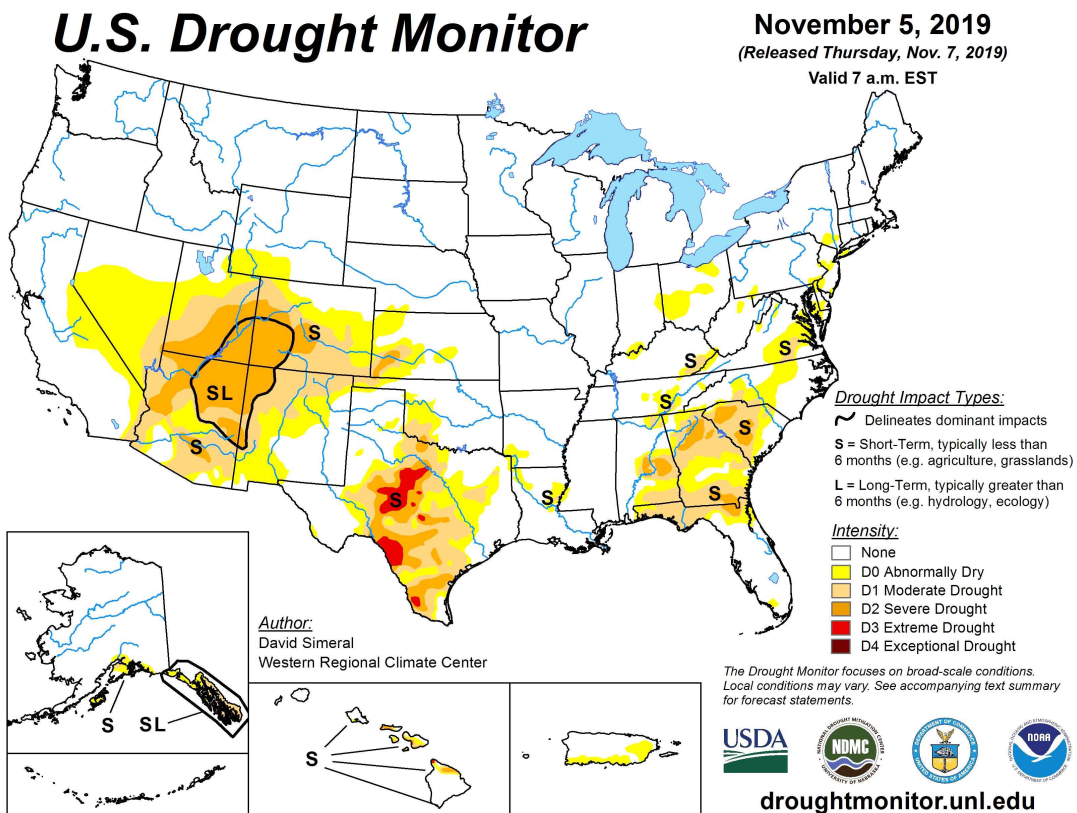


11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5)

□ 미국 기후 현황(11/3~11/9)

주 후반에 찬 공기가 급등하기에 앞서서 비 (지역적으로 1-2인치 또는 그 이상)가 평원 남부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 안에까지 야외 작업을 늦추거나 정지시켰다. 비가 내리는 기간도 남동부와 멕시코 만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북부 전역, 주로 평원 북부에서부터 오대호 지역 내까지 눈이 내렸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인 때는 주 중반으로서 옥수수 벨트 북쪽 전역의 강설 총량이 대체로 2-6 인치 가량 되었다. 북동부에는 강우도 내렸는데 강한 비는 대체로 뉴잉글랜드 해안으로 국한되었다. 서부 대부분을 포함해서 미국 내 다른 지역은 날씨가 건조하여 수확 활동에 유리했다. 캘리포니아, 대분지, 산간 서부 (인터마운틴 웨스트)에서는 천천히 비 내리는 계절이 발달해왔다. 그 외의 서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추운 조건들이 아주 천천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로키 산맥 동쪽은 으스스한 날씨가 계속 머물렀는데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5° F 가량 높았던 플로리다 남부만 예외적이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곳과 대분지, 사막 남서부도 전체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 일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 F 낮았고, 미시시피 계곡, 옥수수 벨트, 북동부를 덮고 있는 더 넓은 면적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11/4~11/10)

11월 10일에 끝나는 일주일 동안 나라의 대부분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델타 북부, 미조리 남부, 평원 남부 일부에는 총 3인치 이상의 강우가 내렸다. 미국 동부 절반 대부분에 걸쳐서 주간 온도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았다. 오대호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12° F 이상 낮았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부와 로키 산맥의 선별적인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4° 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1/3~11/9)

■ 유럽: 남쪽의 재배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포켓화된 건조와 가뭄이 계속 머물기는 했지만 비에 젖은 날씨가 유럽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확대되었다.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서양 폭풍으로 영국, 프랑스, 북스페인에서부터 동유럽의 많은 곳까지 알맞거나 강한 비가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계속 내려서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적당하거나 풍부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체코 공화국에서부터 중앙 폴란드까지의 지역은 비가 비켜가서 단기 건조 (30일 강우가 평년의 50% 미만)가 발생하여 포도 수분을 다소 감소시켰다. 더욱 눈에 띄었던 것은, 가뭄이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에 걸쳐서 계속되어 지난 90일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평년의 25-50%) 밀과 유채의 활착이 제한되었다. 더욱이, 남동 유럽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을 중간 및 높은 십씨 20도 대로 밀어 올려서 발칸 반도의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9° C까지 높아졌다. 평년보다 따뜻한 조건들은 동유럽 나머지 지역 전체와 (평년보다 최대 6° C까지) 중프랑스에서부터 독일까지 (평년보다 2-4° C 이상)에서도 관측되었다. 그로 인해 겨울 작물들은 아직 휴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북부 재배 지역에서는 짧아진 낮과 낮아진 태양 입사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후기 영양 성장 성장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 밖으로, 북이베리아반도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알맞거나 심한 비가 겨울 곡류 활착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상승시켰고 한편 스페인 남서부와 포르투갈 남부에는 가뭄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

■ 구소련(서부): 지난 주 급작스러운 추위가 지나간 후에 아주 따뜻한 날씨가 되돌아왔다. 월초에 갑작스런 추위를 몰고 왔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따뜻한 남풍이 이 지역에 되돌아올 수 있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남부에 걸쳐서 낮 최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십씨 20도 대에 고정되어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1° C 높았다. 계절과 달리 따뜻하여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아주 전형적인 9월말 기온이었다) 남쪽에서는 겨울밀이 휴면에 들어가지 못했고 북쪽에서는 겨울 작물의 내동성을 감소시켰다. 비는 대체로 최북단 재배 지역 (주요 겨울밀 벨트의 바깥쪽)에 한정되어 내렸다. 다만, 우크라이나 중부와 남부에 소나기가 다소 (5-20 mm) 내렸다. 서우크라이나 전역은 가뭄이 여전했고 러시아 서중부에는 격심한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 대비 10% 미만)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겨울밀은 불량한 모습으로 겨울 휴면기에 들어갈 것이고 상당한 수량 손실을 피하려면 이후에 봄비가 적기에 내려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구소련(서부) 지역의 마지막 주간 요약을 마치며, 겨울밀의 휴면이 깨지는, 2020년 3월에 보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 동아시아: 동중국 전역에 가벼운 소나기와 계절을 벗어난 온화한 날씨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3° C 이상)로 인해 밀과 유채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대체로 1-10 mm 사이로서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 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한 표토 수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북중국 평원의 남쪽 구역과 양쯔 계곡의 동쪽 구역은 날씨가 건조하여 추가적인 관개가 필요했다.

이것이 마지막 재배기 주간 요약으로서 겨울 작물들의 휴면이 깨지고 봄 파종이 개시되는 2020년 3월에 주간 보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 호주: 주초에 뉴사우스웨일즈 대부분과 빅토리아 남부에 적시는 비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리 내려서 겨울 작물 수확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씨 덕분에 동호주 일부에서 일부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동부의 많은 곳을 꽉 잡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이 끝나려면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야 한다. 먼 북쪽,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의 먼 북동부는 국지성 소나기 (1-10 mm)로 가뭄 해소가 거의 되지 못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여름작물 파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이미 파종한 작물은 발아와 출현이 더욱 곤란해졌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 중에서 남호주와 서호주는 날씨가 건조하여 겨울 작물 성숙에 유리하여 지역 내 밀, 보리, 캐놀라 수확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다. 호주의 서부와 북동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 C 였고, 호주 남동부는 평년 대비 1-2° C 이하였다.

■ 아르헨티나: 북부와 동부의 농업 지역 전역에 적당하거나 심한 소나기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겨울 곡류의 발달을 위해서는 수분을 올려주었고, 여름작물의 발아를 위해서는 추가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먼 남쪽,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부까지에 이르는 광활한 아르헨티나 북동부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50 mm 범위였고 지역적으로는 더 높았다. 이 비는 특히 계절 초 강우가 늦게 내렸던 북서부 (특히 살타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평년 이상의 기온 (여러 날 동안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함) 때문에 증발 손실이 계속 높았고 작물 발달 속도는 대체로 빨랐다. 비가 적기에 내렸던 북서부와 대조적으로 남서부 농업 지대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부 및 남부 일부)에는 계절을 벗어난 더위 (낮 최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30도 대에 도달함)를 동반하면서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남서부는 지난 주 강우가 영양 생장 및 생식 생장기에 있는 겨울 곡류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가뭄 상태를 상당히 개선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7일 현재 해바라기는 66% 파종되어서 작년 추세 대비 16% 지체되고 있었고 옥수수는 38% 파종되어 작년 대비 14% 지체되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면화는 36% 파종되어 작년보다 5% 앞섰다.

■ 브라질: 대부분의 중앙 브라질과 북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동쪽으로 토칸틴스까지 총강수량 25-50 mm 또는 그 이상의 비가 내렸고, 콩 벨트 (마란하오에서부터 미나스 게라이스 서부까지)의 북쪽과 동쪽 변두리에는 좀더 가벼운 비 (10-25 mm)가 내렸다. 여기에 언급한 지역들에서 여름 더위 (낮 최고 기온

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가 작물의 초기 발달을 빠르게 촉진했으나 증발 손실을 크게 일으켰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1월 8일 현재, 콩은 작년의 96% 및 5년 평균 83%와 대비하여 92% 파종되었다. 그 밖의 지역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까지 적당한 또는 심한 비 (25-50 mm, 지역적으로 100 mm 초과)가 계속 내려서 콩, 옥수수, 사탕수수, 커피 등의 여름작물을 위한 수분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파라나의 1차 옥수수는 11월 11일 현재 99% 파종되었고 콩은 파종이 89% 진행되었다. 한편, 밀은 95% 수확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는 11월 7일 현재 79% 파종되어서 5년 평균 (76%) 추세보다 약간 앞섰다. 콩은 평균 19% 대비 18% 파종되었다. 밀 수확률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67% 끝나서 5년 평균보다 7% 낮았다.